투자유치 나선 박원순… 美 3개 도시 순방

서울시 'CES2020'과 연계 계획

박원순 서울시장이 7박 10일간의 미국 3개 도시 순방길에 오른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7~16일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미국 순방은 2016년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와 캐나다 몬트리올 방문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순방은 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0'의 서울시 첫 참가와 연계해 계획됐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주관으로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다. IT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최초로 CES에 참가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20개 중소기업이 동행해 세계에 자신들의 기술을 알린다.

박 시장은 CES에 참가하는 국내·외 기업인, 미국 현지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을 초청해 동행 기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두번째 방문도시인 실리콘밸리가 자리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이자 매력적인 투자처인 서울 알리기에 집중한다.

박원순 시장. /손진영 기자 son@

박 시장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이사회의 존 헤네시 의장,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과 면담하고 스탠퍼드대 초청 강연에 나선다. 이후 워싱턴 DC로 이동해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좌담회에서 연설한다.

미 국무부 브라이언 불라타오 차관과 면담하고 한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초청 연설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CES는 미래 시장을 주도할 혁신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는 세계 최대 박람회로, 그 자체가 혁신 박물관"이라며 "세계적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혁신 에너지와 창조적인 열정, 과감한 도전을 경험하고 스마트도시 서울의 경쟁력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100만명 모인 '서울라이트' 〈겨울 빛 축제〉 DDP 개관 이래 최대성황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8년比 방문객 59% 증가
작년 12월 31일 25만명 방문
포럼·이벤트 등 콘텐츠 다양

크리스마스 시즌에 커다란 선물 박스로 변신한 DDP 외벽. /서울시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축제에 100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DDP를 찾은 방문객은 86만660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9% 늘었고, 2017년 방문객(39만8285명)대비 118% 급증했다.

방문객은 DDP 주요 길목에 설치된 CCTV 18대에 포착된 인원으로 산출했다. CCTV가 없는 DDP 상부 디자인 거리와 주변 유동인구를 하루당 약 1만명으로 추산해 총 방문객을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라이트는 대표 콘텐츠인 미디어 파사드를 비롯해 문화공연과 마켓, 서울라이트 포럼·워크숍, 이벤트, 전시, 푸드트럭 등 풍성한 부대행사를 함께 선보인 겨울 빛 축제다.

DDP 외벽 전체가 커다란 선물 박스로 변신한 크리스마스 시즌(24~25일)과 2020년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특별 영상쇼가 있었던 31일에는 시민, 관광객 등 총 25만명이 방문해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서울라이트를 정례화해 겨울철 대표 축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자체 개발한 디자인 제품을 동대문 일대 디자이너,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서울라이트와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라이트는 DDP의 굴곡진 은빛 외벽에 빛과 영상 그리고 음악이 결합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환상적인 쇼였다"며 "올해에는 더욱 역동적이고 재밌는 서울라이트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설 기차표 예매하는 시민들

설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인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 앞에 열차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사전단속제, 3개월만에 '페이퍼컴퍼니' 30% 차단

경기도 '공정 건설환경' 조성
적발 업체 행정처분·고발조치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가 입찰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걸러내며 '공정 건설환경' 조성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운영방식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식이다.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 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경기도 2020년 시무식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못 붙이게 한 결과, 3억 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약 16% 감소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을 기피함에 따라 건전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사전단속망으로 15%를 적발하고, 입찰공고문 불이익 명시를 통해 16% 가량의 응찰률이 감소하여 약 30%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오는 10일부터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를 실시, 입찰보증금 징구, 입찰참가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입찰·공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한 이유에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성평등기금 사업공모… 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 여성 사회참여·권익 향상 추진

서울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성평등 관련 피해자(2차 피해 포함) 지원, 사이버 성폭력·데이트폭력 포함 젠더폭력 예방과 대응 ▲성평등한 지역사회, 세대공감 네트워킹, 1020세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등 3개 분야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10억원이며 개별 사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면 지원 가능하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 1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 신청 접수는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WFNGO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는 14일 오후 3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48개 단체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80억 투입 '산불진화헬기' 20대 운영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

경기도는 올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80억 원을 투입,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6대 중 30%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지난해 경기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172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26%를 차지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면적은 41ha로 전국 3,255ha 대비 약 1%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많았고, 캠핑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해 산불발생에 취약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산불진화헬기를 총 1,425회를 출동시켜 진화 활동을 벌였으며, 이 밖에도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등) 예찰활동 등 다양한 산림사업 지원을 실시했다.도는 올해도 신속대응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에 산불진화헬기를 20대를 분산 배치해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경기도내 20개 시군에 배치되어 운용중인 산불진화용헬기 /경기도

/경기=김승열 기자